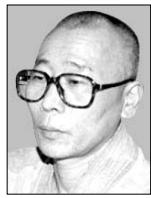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5>



결정된 믿음과安心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정토문은 고뇌와 좌장으로 불안해하는 생명이기에 안심과 희망을 부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효도 일심증득을 수행의 궁극으로 삼았지만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신성취(信成就) 발심은 십해(十解: 보살계의 제11~20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견하여 십신(十信: 보살계의 제1~10위, 범부단계)을 취합니다. 십신의 자리 가운데서 신심을 닦아 익혀서 신심이 결정되어 결정신심(決定信心)을 일으켜 십주(十住=十解)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취 발심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원효는 범부를 위해 간단명료하게 가르침을 펴보았으니, 부처님 지혜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것이며,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진실로 믿고 열불하면 일심의 바다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아직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였고, 일심을 증득하는 길이 요원할지라도, 자신이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성취하여 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수행에서 믿음이란 첫째는 모든 수행의 궁극인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이며, 둘째는 "무량한 자비광명"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결정하여 믿음으로써 안심(安心)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믿지 않으면 보리심 일으킬 수 없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니 믿음이 우선

지혜에 대한 결정된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쉽게 믿음을 성취하고 발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탐진치와 오욕을 떠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결정하여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신론>에서도 "업의 과보를 믿어 능히 심신을 일으키고,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진히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여 일만 겁을 지나서 신심이 성취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범부가 신심을 성취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이 쉽게 일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수행문이 정토문과 염불수행이며, 원효는 그 뜻을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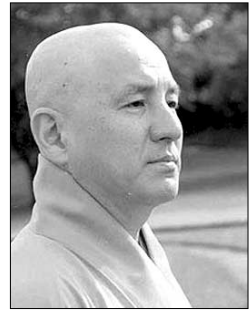
있습니다. 자신이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확신하고 안심을 얻습니다. 염불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함으로써 반드시 일심의 바다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성취하여 안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행생활의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수행문에서 일념으로 정진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거나, 현실적 기복을 말하는 곳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안일하게 다음 생을 기약하는 등의 수행 태도는 모두가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오늘날 의혹 많은 범부들은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는 우선 깨달음 이전에 결정된 믿음을 안심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 궁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상 정토원 원장>

천수경 마음으로 읽으면 글도 뜻도 '생생'

'천수경 禪解' 퍼낸 묘봉 스님



"최무자성 중심기(罪無自性 從心起)라는 것의 의지는 무엇인가?" "해저생연(海底生煙)이 아니라." <천수경>을 선(禪)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 대전 국은사 주지 묘봉 스님은 <천수경>을 본격적으로 선해(禪解)한 <눈 달린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소울음)를 통해 '최무자성 중심기'를 이렇게 해설한다.

"이는 없는 죄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도리이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삼라만상이 다 마음 심(心)자로부터 일어나고 여기에서 열반에 드니 성스러운 적정(寂靜)에 든다는 말입니다. '없는 죄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도리'를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연기와 같다'고 일컬었습니다. 그 '없는 마음이 적멸하여 버린다면 바로 그 때에 죄도 또한 없어져 버린다'는 법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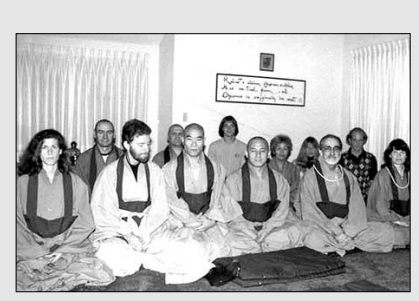
덕숭림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해암현문 스님의 전법제자로 알려진 묘봉 스님은 <천수경>은 천, 만가지 부처님 법문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드러낸 경으로 염불과 경전, 선

의 요지를 두루 섭렵하여 전하고 있다"며 출간 동기를 밝혔다. 눈으로만 읽으면 뜻과 글자를 모두 잃지만 마음으로 읽으면 글자도 살고 뜻도 산다는 <천수경>. 묘봉 스님은 이 경이 전하는 핵심을 이렇게 말한다. "일심 법계(一心法界)가 부처님의 몸이니 늘어 펼치면 두루하여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좁혀 움츠리면 바늘 끝조차 허락하지 못한다. 존

재의 세계 그대로가 일심 법계요 불심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시절에 수덕사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 덕산(德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묘봉 스님은 동국대와 상명대 강사를 역임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능인선원(서산사)에서 외국인에게 선을 지도했다. 81년 귀국해 수덕사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판치생모(飯齒生毛)' 화두를 타파한 후 전법계를 받았다.



1984년 수덕사 연화선실에서 해암 스님의 전법계를 받는 묘봉 스님(위). 83년美 캘리포니아 주 적목선원에서 외국인 제자들과 함께 한 묘봉스님.



대전 국은사 외에 미국 버지니아 주 세계사 일화선원, 캘리포니아 주 서산사, 아리조나 주 일광선원 분원을 두고 있는 스님은 최근 활발한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대전 국은사(www.urbuddha.org) 정기법회는 물론 부산 심우회에서 매월 셋째 주 화, 수요일, 광주 무등선원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02-517-3052)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참선법회를 열어 선을 지도하고 있다. 6월 11일 서울 법사불교대학 사무실에서 묘봉 스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다. "선(禪)이란 무엇입니까?" "공이 부처입니다." "달마 대사가 전한 심인(心印)이란 무엇일

분명히 했다. 선의 종지는 결국 '마음'이란 두 글자에 있기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 입이 곧 화근입니다." "이 마음은 부처와 중생이 함께 가진 것인데, 중생은 왜 깨닫지 못하나요?" "깨닫지 못하므로 중생이란 이름이 붙었지요." 마음이란 것도 부득이 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기에, 마음을 입에 올릴 수록 도(道)와는 멀어질 뿐이다. 이 마음이란 것은 부처와 중생이 함께 갖춘 것이기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평등하다 했다. 다만 망상과 분별심으로 인해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중생'이라 불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스님은 "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칙이 있는 공부는 벌써 죽은 수행이다"고 답했다. 고 정관님과 분별심을 철저히 거부하는 선 수행에서 이런 말이 성립될 리 없다. "간화선을 닦는 요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화선 참구하면 된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어떤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일체 화두가 다 부처님의 몸이라 여기에 이르러 분별하지 마세요. 머리에 짊어지고 다니는 화두 글자부터 버리는 것이 사교입선(舍敎入禪)입니다."

묘봉 스님은 참선 지도와 관련,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버리지 않는다"면서 "목숨 내놓고 묻는 남 대담하여 주리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고집멸도 명상상담 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스님)은 제1차 고집멸도(苦集滅道) 명상상담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서울경기 지구는 8월 6-8일 남양주 봉인사(031-574-5585)에서, 부산경남 지구는 8월 13-15일 경주 동양유스호스텔(054-748-6577)에서 각각 연다. 연수회 프로그램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위빠사나 명상의 이론과 실습(인승택 동국대 연구교수, 팔리문현연구소장 마성 스님) △분석적 관찰(고) : 명상상담의 이론적 기초-유식불교의 아뢰야식과 연기관법(인경 스님) △성격의 유형분류(김) : 에니어그램의 이론과 실습, 메어의 작업단계를 중심으로(이순자 교육학 박사 △미해결과제 드러내기) : 심리극의 이론과 실제(박희석 원광대 예술치료대학원 교수, 개수팔트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습(이지영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상담팀 △실천의 과제(도) : 고집멸도 명상상담과 연기관법(인경 스님) 등.

'사띠, 위빠사나, 참선' 수행 경남 김해 다보선원은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8차에 걸쳐 '사띠, 위빠사나, 참선'을 주제로 집중 수련회를 연다. △6월 26일

~7월 22일(대학생) △7월 23일~7월 29일(일반인) △7월 30일~8월 5일(초중고생) △8월 6일~8월 12일(일반인). 문의 (055)331-2841

관절염에 "글루코사민 삭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 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 성분 및 특징: 1.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삭카트리지 180정(2개월분) x 3병. 2.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틴황유) 400mg, 구연산칼슘 150mg, 비타민 C 75mg, 티타늄 D, 티타늄 D3, 토포콜롤, 아연, 망간 등. 3. 섭취대상자: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무릎이 쭉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며. 4.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 낫는 병입니다. 상담문의 : 080-631-4525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 개요: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원: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포(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학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1.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다. 2.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서해복지법인 부처님 마음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4. 의롭고 우물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5.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6.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 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구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8.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수련과정: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8기). 교육방법: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수.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조석중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정 등) ④ 재의식편(천도제·49제·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접수방법: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개강일시: 7월 6일(화) 오후 6시, 본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